朝鮮日報

時評

四百戶移民

八百二十六萬八千圓의豫算으로 明年에拓殖省이設置될 모양이다 明年度에는海外移民을 二萬乃至三萬假定보낼터이라하야 朝鮮으로의移民計劃도 積極的으로實現되리라는것은 이미論及한바가잇섯거니와 昨紙의報道에依하면 또日本海外協會中央會에서 京城元山兩某地點에 約五千五百町步를 買收하야 四百戶의日本農民을 移住시키라고 資金을大藏省預金部나 朝鮮殖産銀行으로부터 融通하리라고한다

×

朝鮮과가티失業人口가만흔 곳에잇서서 그들에對한救濟는 姑捨하고 年年히政府에서나 民間에서나 日本으로부터 多數한移民을보내고잇슴은 그農民가어대잇슴을생각하기어렵다 지난九月에열닌人口食糧調査會人口部會에서決議한 人口問題答申案은 朝鮮과가티農村이疲弊하야 만흔失業者가생기는곳으로移民을勵行함은 한갓原住民으로하야금不安을더하게하는것이라하야 移民이事實上不可能하다고指摘한 바가잇섯든것이다 그러나오늘에잇서서 다시朝鮮으로의移民計劃이 더만히實現될빌미가되어간다 日本農民의 移住가朝鮮의土地開拓에效果가 업는것은아니다마는 그때문에朝鮮農民을 渡落하고 失業하며가는朝鮮農民을度外視하야 遊離破産하는대로맛기어둔다는것은 얼마나寒心한일인가!

×

日本에잇는農民의處地도良好한것이아니다 그리하야小作爭議으로부터일어나는不平을 緩和시키기爲하야 自作農創定維持規則이잇서가도하다 그러나도리켜朝鮮農民의處地를 살펴보면 그보다도더욱悲慘한狀態에잇는것이다 再昨年現在의統計에依하면朝鮮水田의自作面積은三割五分이오 日本의그것은四割九分가되며 小作面積은朝鮮에잇서서六割五分오 日本에잇서서는五割一分이라고함을보면 朝鮮은日本보다더土地兼併의傾向이더하야 小作農이만흘뿐아니라 小作地의分配에잇서서도極히僅少하야二三斗落에지나지못하며 거기에또小作權의契約이完全하지못하야 그地位가極히不安한狀態에잇는것이다

×

그럼으로 만일 公正하게본다고하면 日本農民보다朝鮮農民을保護함이 當然한일일것이며 다만農民에게미티는心理的影響으로볼지라도 日本農民의移住는 朝鮮農民의不平을助長시킴에 어지고말것이다 拓殖省을비롯하야 또는海外協會와가튼民間團體의移民獎勵計劃가튼것은 朝鮮에限하야는斷念하는것이 오히려賢明하다할것이다 다만朝鮮을가지고日本의人口食糧問題의 一助가되게할신대 土地開墾, 産業開發等方面에注力하는것이 오히려나흘것이라고하겟다

對英米關係로서 日本을牽制할方針? 中國側硬化의間接原因

(南京二十二日發) 日中交涉에對하야中國側이依然硬化한直接原因은分割的解決을자미업시생각함에在한듯하나 間接原因은國際關係에잇서서英國米國等의條約改正等이聯關되어進行中인外...

即時撤兵코 遺憾을表하라 藤田總領事에對한 王氏의强硬한回答

撤兵問題責任과 全權有無를反問 矢田總領會見要求에 王正廷氏態度益强硬

周氏를介하야 會見通告 交涉의前途는 依然暗澹하다

西原借款으로 兩氏間에論爭

回訓을待할뿐 ◇矢田總領談

上海로移轉 鹽務稽核總處 年內에完了할터

新興中國의 主要言論機關 上海에서發行하는六新聞

撤兵聲明치안흐면 交涉에絕對로不應 田中內閣은四重五重의外交 芳澤公使來寧도歡迎안는다 ◇矢田總領과會見後 王正廷氏談

北平電車員 軍人과衝突 罷業氣分濃厚

撤兵期明示後 交涉을求하라 王正廷氏聲明書發表

撤兵時期는 回訓기다려明示 二十二日會見은하얏스나 交涉은事實中止狀態

佛公使南下 結果重大視

露經濟委員의 旅券査證拒絕

臨江縣知事辭任

排日運動은 愛國運動이라고 堀代理公使取締要求에 北平首席張繼氏는拒絕

英國과의 協調問題로 首相次官協議

地方官更迭은 通常府縣會議後

伯爵團脫會에 子爵團樂觀 研究會의暗鬪

遞相에對한 不平漸次擴大

來月에大會열고 民政黨制改革 總務以下全部改選

朝鮮漁業令 發布키로內定 實施는靑後年

關內奉天軍 空氣자못險惡 高級幹部에對한反感과 給料不支拂等으로

田中內閣外交에 四面攻擊의手 『遞相策動이直接禍因』 進退兩難, 打開策全無

荷主側의 運合協議委員 七名選定?

日英同盟은 希望에不過 ◇外務省側의觀測

鐵筆漫寫

謹告

朝鮮日報社京城販賣所

八面

朝鮮日報

今日四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日中三次交涉의 破裂

一

難關에 難關을 거듭하야 오든 日中交涉은 第三次에서 다시 破裂을 傳한다 지금 王正廷氏의 發表한 스테ー트멘트의 大意를 보면 第一次에 잇서서 王氏가 矢田總領事와 會見한 結果 條約問題를 除한 南京、漢口事件과 밋 濟南事件等 그 解決方法에 對하야 日中意見이 大畧一致되엿섯스나 오즉 山東撤兵에 關하야는 矢田氏로부터 日本政府에 請訓을 하겟다 하얏고 第二次에 이르러는 回訓이 아직 오지 안핫슴을 말하얏고 그리고 今番三次勞頭에 王氏가 撤兵期의 確答을 무른바 矢田氏는 如前히 回訓未到를 말함으로 王氏는 다시 그 撤兵期가 決定되지 안는 以上 그 以上의 談判을 繼續할 必要가 업다 고하야 交涉은 드듸어 破裂된 모양이다 現在日中交涉의 第一難關은 撤兵問題에 잇다 그것은 우리가 일즉이 말한바 잇거니와 今後의 日中交涉은 장차 어찌되려는가? 勿論 이것을 가지고 日中交涉의 終幕으로 보지는 못하겟지마는 日中交涉은 恒常難關으로 一貫하는 會談이며 다시 어떠한 機會를 어더 어떠한 進展을 보겟는가

二

한편으로는 米國이 잇고 또한편으로는 英國이 잇다 지금 그들은 될수잇는 限度內에서 中國에 對한 親分을 낙그려고 努力한다 日本의 對中交涉은 難產이 아닐수 업슬것이다 그럼으로 强硬論만을 固執하든 田中內閣으로 하야금 多少의 讓步를 아니치 못하게 한것이다 今後의 對策은 果然 어떠하려는가? 近日 久原遞相을 中心으로 다시 强硬論의 擡頭를 보게된다 하니 그것도 우리의 注目을 끌지 안흘수 업다 그러나 今後 田中內閣이 다시 中國에 對하야 强硬政策으로 나아갈수 잇겟는가? 업겟는가? 各方面의 非難이 層生疊出할 뿐 아니라 첫음부터 田中內閣의 强硬政策을 支持하든 大阪의 資本家들도 지금와서는 多少 그 氣勢를 멈추고 잇는 모양이다 그러면 中國에 對하야 最後에 最後까지 讓步를 다하겟는가? 거긔도 여러가지 難問題가 잇슬 뿐이 아니라 첫재 田中內閣의 面目을 支持하기에도 困難한 날이다

三

여긔 한가지 注目할 事實은 日本이 中國政界各派에 對한 態度다 日本에 對하야 好感이 자못 減殺된 蔣介石氏는 濟南事件以後 가트며 閻錫山氏와는 交際가 자못 疎遠하며 오즉 馮玉祥氏가 近日에 이르러 가장 親日說도 傳하고 또 日本政界로부터 憎惡와 厭忌의 標的이 되엇든 馮氏가 近日에 이르러서는 자조자조 讚揚의 노래를 밧게 된다 더구나 山東一帶는 거의 馮氏의 勢力地盤이 아닌가? 여긔서 우리는 美妙한 脈絡을 차즈려한다 그러나 그것은 決코 單純한 好奇心의 發作이 아니다 前日의 習慣을 버리지 못하는 新軍閥과 前日의 陳腐한 外交政策을 恒常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將來를 자못 注意하고자 한다

오늘의 中國은 前日의 中國이 아니다 恒常 그 上部爲政者의 脅動만을 捕捉하기에 일삼고 萬一 그 下層民衆의 意思를 無視한다면 設使 그 外交가 一時的 收權을 어덧다고 하더라도 永久的 失敗가 아닐수 업다 지금 米國이 不平等條約을 撤廢하고 大使館을 昇格하는 等으로 中國의 好感을 엇는다 고하자 그의 巨大한 金融資本을 가지고 全中國을 與奪하기 爲하야의 한 手段이라고 하면 不久에 잇서 中國이 米國에 對한 乾燥과 反目을 想像하기 어렵지 안타 中國은 軍閥의 中國이 아니요 中國人의 中國인 것을 再三생각지 안하면 아니된다 日本의 對中外交도 問題는 그 根本政策如何에 잇는것이요 決코 今番交涉의 破裂與否가 그다지 큰 問題가 되지 안홀 것이다

中國態度依然强硬이면 日本은 交涉에 不應
南京漢口事件의 遲延도 無可奈
外務省矢田領事에 訓電

(東京電) 矢田、王正廷氏의 豫備交涉決裂에 對하야 外務省은 二十四日午前十時半부터 省議를 開하고 吉田次官、小村情報部長 有田亞細亞局長等이 協議를 한 結果 大畧左와 如히 決하고 直時 田中兼攝外相에게 報告한 後 矢田上海總領事에게 訓電을 發하엿더라

一、今回 王正廷의 取한 暴戾한 態度는 內政關係에서 出한 것임으로 日本으로서는 中國側이 如斯한 態度를 곳치고 誠意로서 懸案解決에 當할 意向을 表示치 안는 限에는 日本側으로부터 自進하야 交涉開始의 方針에 出하지 안코 기어히 中國側自體의 形勢에 依할 事

一、이가 爲하야 漢口南京事件의 解決이 遲延되더라도 不得已한 일임으로 日本政府로서는 右問題의 早急解決을 必要하지 안흠

一、따라서 日本政府가 聲明을 發함과 가튼 手段을 取하지 안코 默殺함

一、有田亞細亞局長으로부터 田中首相에게 報告할 案도 其必要를 認定치 안흠 首相의 歸京을 기다려 其後의 形勢如何에 依하야 다시 省議를 거듭할 事

以上과 如한 것이나 但 關稅問題만은 此等諸懸案과 分離하야 本日부터 上海에서 矢田、宋子文氏間에 交涉을 開할터인바 解決까지는 相當히 長時日을 要할 模樣이더라

決裂도 不得已
既定方針대로 進行할터로
撤兵期明示絕對不能

(京都電) 矢田總領事와 王正廷氏의 交涉決裂顚末에 對하야 森外務次官은 二十四日午前十一時 田中首相을 訪問하고 情報를 報告한 後 對策을 懇議하엿는데 中國側最近態度에 關한 政府當局의 見解는 既定方針을 變更할 必要를 조곰도 認定치 안는다 는것이다 卽 政府의 方針은 屢次聲明한 바와 가티 단지 山東方面의 治安維持、在留日本人의 生命財產의 確保를 目的하고 駐兵을 하는 것임으로 情勢가 駐兵을 不要하는 程度에 至하면 自發的으로 速히 撤兵할 것은 勿論이다 따라서 지금 撤兵의 時期를 示하기는 不可能함으로 이 外닭에 日中交涉이 決裂되더라도 不得已할 일이다 如斯한 處地에는 冷靜히 中國의 反省을 기다릴 것이다 萬若 中國側이 日本駐兵目的을 完全히 達하고 誠意를 示하면 責任者處罰 損害賠償 排日取締等의 條件에 對하야 撤兵을 聲明하게 될 것이다

國民政府强硬은 國民黨監視에서
一部安協派도 不無
◇……某委員談

(上海二十三日發) 上海에 滯在中인 國民政府某委員은 左와 如히 語하더라

日中交涉의 結果는 直時 蔣介石氏를 首席으로 한 現國民政府에 重大한 影響이 잇고 또 青年國民黨員이 中央黨部에서 日中交涉의 進行을 監視하는터임으로 外交部도 强硬히 撤兵을 主張하는터이나 一部에서는 濟南의 日本軍을 青島外지 撤退할 것을 條件으로 交涉에 入할 것이라고 妥協的 意見을 가지고 잇는 者도 잇스나 모든 것이 時期의 問題이다

關稅問題에 誤一步면 三億圓債權이 水泡
交涉停頓은 政府의 致命傷이라고
◇……民政黨側의 觀測

(東京電) 日中交涉의 進行에 對하야 民政黨은 愼重한 態度로 監視中인데 同黨側의 觀測하는 바에 依하면 要컨대 久原遞相의 策動으로 反히 惡影響을 주어 田中外交는 畢竟 切迫狀態에 이르럿다 中國側에서는 山東撤兵期를 明示치 안흐면 交涉에 應할수 업다 는것과 가튼 態度를 示하게 되엇는데 이 外닭에 特히 關稅問題에 잇서서 一步를 그릇치면 三億의 不確實債權도 無用하게 되어 日本貿易은 말할수 업시 되야 後悔를 百年에 남기는 結果에 陷하지 안는다 고도 할수 업다 고자못 憂慮하야 此際에 露骨的 攻擊을 中止하고 잇스나 同黨에서는 或은 此로서 政府의 致命傷이 되지나 안홀가 觀測하는 者가 多하더라

英國皇帝陛下
肋膜炎併發의 御兆候가 顯著

(倫敦廿四日發) 『英지』皇帝陛下의 御容態에 關한 二十四日의 公報에 依하면 昨夜는 安眠을 하시고서 今日은 小康狀態를 繼續하시는데 그러나 此種의 充血은 普通 肋膜炎을 併發하는 것임으로 陛下의 御症狀에도 이 兆候가 顯著하다 더라

次回會見은 明言不能
聲明書發表할터
◇矢田總領談

(南京二十三日發) 矢田氏는 上海로 出發하기 前에 左와 如히 語하얏다

上海에도 여러가지 事件이 남어 잇슴으로 如何間 도라가기로 되엇는데 次回의 會見에 對하야는 明言할수 업다 濟南問題及撤兵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야 藤田總領事가 南京에 와서 協議를 하게 될지도 未知이다 日本政府로부터 聲明書를 發表할터이다

東三省鐵道는 外款을 絕對不許
오즉 專設自主로 한다
◇東三省交通委員會決定

(奉天二十三日發) 東三省交通委員會에서는 지난 十九日 各委員을 召集하야 同日午後三時부터 同五時에 닐으기까지 會議를 繼續하얏는바 그 會議의 內容은 左와 如하더라

一、東三省各地의 路權保持와 國有鐵道의 敷設擴張에 關한 研究

二、今後 東三省各地의 鐵道敷設은 路權保持의 目的으로서 絕對로 外款에 依한 敷設을 不許하고 專設自主하야 此를 行할 事

三、東三省各地鐵道敷設의 專設經費籌備는 全國商民各界에 對하야 東三省鐵路公債를 發行하야서 그 募集에 當할 事

四、公債의 募集은 東三省內國有鐵道로써 擔保로 하고 募集한 公債는 鐵道敷設의 自主基金으로 하야 鐵路擴張에 充當할 事

五、以上은 保安總司令에 請願하야 認可되는 날로부터 此를 實行할 事

雙橋無電도
交涉畢竟停頓

(南京二十三日發) 雙橋無電問題는 日本으로부터 다시 抗議를

奉派의 支配하던 鐵道事務 一切를 國民政府에 移管
交通部內에 連絡事務局을 新設
南北統一에 進一步!

(哈爾賓二十四日發) 奉、直戰爭後 東三省의 交通은 事實上 全中國交通網으로부터 分離되야 南京政府의 管下에 잇는 鐵道와 連絡이 杜絕된 外닭에 旅行者間에는 非常한 不便을 與하엿는데 그後戰爭이 終熄된 後라고 하야도 亦是 아즉 完全히 連絡되지 안홈을 技術的 連絡에 關하야는 奉天側과 國民政府側과의 間에 屢次折衝을 거듭하엿스나 中國全土의 大部分의 鐵道가 南京政府支配下에 잇슴으로 鐵道連絡에 關하야는 一切 南京交通部에 一任하기로 되어 二十日 南京政府로부터 中東鐵道本社에 對하야 交通部內에 連絡事務局을 置하고 今後 一切連絡事務는 그 命令에 從할 旨의 通牒이 잇섯더라

張宗昌再起코저 土匪團收集中
山東을 中心으로 活躍

(青島二十三日發) 張宗昌氏 一派는 山東에서 土匪를 모라가지고 再起를 圖하려 하더라

差等稅의 對策案
年內에 成立?

(東京電) 南京에 在한 矢田總領事와 王正廷氏의 日中準備交涉이 事實上 決裂됨에 不拘하고 矢田總領事가 宋子文氏와 關稅商議를 始作한 것은 一部에서 解釋하기 難하다 하는바 右는 단지 日中關係에만 곳치는 것이 아니라 列國共通의 關係上 必然的의 事이라 고한다 卽 國民政府는 來年一月一日부터 關稅自主實施를 强調하나 實際上 列國의 承認을 엇기 不能한 것은 明白하야 結局 七種差等稅率에 依하지 안흘수 업다 玆에 前年의 關稅會議에서 主要國間의 諒解를 得한 懸案을 기어히 實施하야 附收를 圖할 希望을 가지는 理由가 업서 大槪 同情的 態度를 가지고 잇다 特히 英米는 稅加가 이미 關稅自主承認을 與하고 英國도 一方으로 關稅條約交涉을 非公式으로 進行中인 事實에 鑑하야 日本으로서는 가장 重大한 貿易關係를 가지고 잇는 以上 한갓 傍觀만 할수 업다 는 實際問題로서 國民政府의 要望에 應하지 안흘수 업는 處地에 잇게 되엇다 外務當局의 보는 바에 依하면 相當히 長時日을 要할 것은 勿論이나 結局 各國의 意向에 大差는 업슴으로 七種差等稅率의 成案은 年內에 되리라고 본다 此로 列國과의 協調도 어느 程度까지 되리라고 語하더라

研究會의 紛爭은 政策遂行上支障
府政는 前途를 重大視

(京都電) 研究會의 紛爭은 政府對貴族院의 關係에도 影響이 잇서 重要政策遂行에 支障을 招來하리라고 政府에서도 昨今에 이르러 그 進行如何를 重大視하게 되엿더라

國民黨務!
見學員特派
奉天側에서

(奉天二十四日發) 東三省의 國民政府化는 奉天當局者의 理不理에 不拘하고 逐日進行하는 狀態에 잇슴으로 總司令部에서도 또한 大勢에 鑑하야 今回 國民黨의 黨務를 見學시키고저 委員數名을 南京에 特派키로 決定하얏는바 一行은 近日中 出發하리라더라

簡保改正案
來議會에 提出

(東京電) 遞信省簡易保險局은 最近國民生活의 向上 物價勞銀騰貴等에 鑑하야 來議會에 關係法規改正案을 提出하고 最高制限額을 六百五十圓乃至七百圓으로 할 方針이더라

全勞働青年同盟
日勞黨支持의 精銳로써
明年一月에 創立大會

(東京電) 日勞黨支持團體中의 青年鬪士를 中心으로 한 新結成體인 全國勞働青年同盟의 創立大會는 明春一月中旬 芝協調會館에서 擧行키로 決定하얏는데 이미 二回의 準備委員會에 依하야 一切를 決定하얏는바 그 綱領은 左와 如하더라

◇綱領

一、吾等은 無產青年獨自의 立場에서 無產階級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의 實現을 期함

一、吾等은 無產階級××運動의 前衛로서 支配階級의 炎업는 搾取와 暴壓에 對抗하야 勇敢한 鬪爭을 敢行함

一、吾等은 全無產青年의 大衆的 結成의 壓力으로써 分裂된 現下의 無產階級××線의 統一을 期함

床次氏의 意嚮

(東京電) 二十四日 石塚、床次兩氏의 會見은 石塚英藏氏가 個人으로 會見하엿다 고하더라도 미리 總裁의 內意를 바든 以上 民政黨의 對議會策을 決함에 對하야 床次氏의 眞意를 探索하는 것이라고 觀測되는데 床次氏는

一、對中問題는 政府의 處置에도 不滿이요 幣原外交에도 不滿이다

一、地租營業收益稅의 委讓에는 反對이나 豫算에 나타난 兩稅輕減案에는 民政黨이 此를 委讓의 前提로써 不可分으로써 反對함에 對하야 余는 政府의 可分說에 贊成하고 明年度豫算案을 通過시킬 意嚮이 잇다 는事가 大體明白하게 된 것은 新黨의 態度를 卜함에 對하야 注目하는 바인데 石塚氏는 時期를 기다려 다시 床次氏와 會見하리라더라

八面鋒

○日中交涉의 停滯는、久原遞相의 罪라고、民政黨에서 말하얏다、遞相이 아니라 滯相인 모양

○上海地方에서는、蛙料理가 流行하야、宜川으로 牝蛙二萬五千匹을 注文하얏다고

○京城府新道路計劃工費中 二百五十萬圓을、市民에게 受益稅로 거두기로 하엿다고、朝鮮人市民은 이 受益稅 내기전에、移住當할 사람이 負擔者보다 만흘듯

總司令勸告도 不聽 依然排日을 繼續
各處에 赤色宣傳文貼付코
奉天學生排日團活躍

(奉天二十二日發) 中國側의 學生排日團은 張學良氏를 爲始하야 當局의 嚴重한 勸告가 잇슴에도 不拘하고 此를 排斥後 益益猛烈한 排日運動을 繼續하는 中인데 그 方法의 一로서 그들은 日本의 行政圈內에 居住하는 中國人을 煽動하야 附屬地를 攪亂식히고저 彼等의 一派는 二十二日未明 附屬地에 드러와 秘密히 市內富士町六番地 吉田德馬의 집압 電柱及 그 附近에 過激한 文句를 羅列한 赤色騰寫版印刷의 宣傳文을 貼附하고 附屬地居住의 中國人에 對하야 排日宣傳에 努力中으로 宣傳文貼付는 前記吉田집 以外 數個所이라더라

加州日農民에 又復難問題
耕地에 對하야 地方官이 嚴查

(桑港二十三日發) 米國加州에는 米作에 從事하는 日本人이 多數이다 그러나 日本人은 州에서 借地를 禁止함으로 米國人의 名義로 借地하는 日本人이 多하다는 風說이 돌기 始作하야 同州 『왓타ー』 地方官憲은 此에 對하야 嚴密한 調査를 開始하엿다 同地方에는 米八萬俵以上의 收穫을 하는 日本人이 多함으로 또 複雜한 問題가 起하지나 안흘가 念慮하게 되엇다 右官憲의 態度는 過般 大審院에서 『로산젤스』의 日本病院設立問題가 勝訴되엇슴으로 此에 對한 反動이 나아닌가 하더라

新興中國의 主要言論機關 (二)
北平에서 發行하는 諸新聞

北平의 新聞은 政變이 잇슬때마다 或은 업서지고 或은 일어나서 恒常 이러케 反覆되어 왓슴으로 그 發達程度는 上海에 比하야 더구나 北平은 上海보담도 二三層 떠러지지 안흘수 업다 商工業이 幼稚함으로 廣告의 供給이 微少하야 經營上 有利한 것은 거의 하나도 업고 오즉 在野의 政派로부터 補助를 밧지 안하면 支持하기 조차 困難할 것이다 그럼으로 輪轉機를 備置한 것은 겨우 日本外務省機關紙인 順天時報뿐이요 그 外에는 自社에 印刷機械를 가지고 印刷하는 것도 現在로 益世報、世界日報、新晨報、北京日報에 지나지 못하고 그 남아지는 全部 新聞印刷를 專門으로 하는 印刷所가 잇서 거긔서 박이어 오게 된다 그런데 北平과 上海의 新聞이 서로 差異잇는 것은 上海는 英米式을 從함에 反하야 北平天津은 純然히 日本을 模倣하는 것이다

◇世界日報 奉天派執政時代에는 그 忌諱에 부드칠 外에는 論調를 注意하야 왓스나 大槪 國民黨의 機關紙로 注目되엇고 北平城우에 青天白日旗가 펄치자 公公然히 國民黨의 機關紙로서 自處한다 內政에 잇서서는 國民政府中에서도 馮玉祥一派에 가장 가까운 態度를 보이고 對外問題로

◇新晨報 本來는 梁啓超氏系 中心으로 陳博生等이 晨報라는 이름밋헤 創刊하야 그 當時 研究會의 機關紙가 되야 잇든 것이나 研究會 對 國民黨의 軋轢關係로 國民黨에 對하야 恒常 好感을 가지지 못하얏다가 年前 馮玉祥이 쿠데타를 이리킨 後 學生의 示威運動으로 因하야 社屋은 고만 破毁되얏고 그 後로도 그 態度를 고치지 안타가 本年七月에 이르러 國民政府로부터 封鎖命令을 當하얏다 그리하야 閻錫山直系의 李慶芳이 同社의 家屋及印刷機械를 一切 沒取하아 가지고 新晨報라고 이름을 고치어 다시 發刊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毎日十二頁의 紙面을 發行하야 紙面으로는 比較的 穩健한 것이다 社長은 成舍我요 主筆은 吳範寰이며 그 基礎가 相當히 鞏固하야 發展의 可能性이 잇다 發行部數約五千

◇益世報 南으로 申報 北으로 益世報라고 雙璧으로 치도록 一時 名聲잇든 新聞이다 最初 米國人의 資本으로 시작하엿스며 지금도 名義上으로는 아직 米國領事館에 登錄되어 잇지마는 米國과의 關係는 아조 斷絕되엇다고 말한다 社長은 杜竹軒이오 主筆은 朱鏡新이니 杜는 排日主義에 가장 徹底하야 益世報는 거의 排日新聞으로 생긴 感이 업지 안흔듯 排日論調가 强하며 內政問題는 無所屬이다 發行部數六千

◇北京日報 前淸時代에 創刊되어 淸朝의 補助를 밧다가 民初年에는 袁世凱에게 好意를 보냇섯다 社長兼主筆인 朱淇는 北平新聞界의 元老라고 할수 잇스나 編輯方法은 恒常保守的이라 別로 보잘것이 업고 對內對外하야 아모 主義主張도 업다 發行部數約二千

◇順天時報 義和團事件直後에 日本人의 손으로부터 創刊된 것이라고 하나 詳細한 것은 알수 업고 그後 日本外務省의 機關紙로 가되야 資金의 困難이 업슴으로 一時는 北中國一帶에 그 氣勢가 노파 部數三萬을 突破하얏섯다 고한다 그러나 國民革命軍이 北京을 占領하며 打倒列强 打倒帝國主義의 標語가 이곳저곳에 못자 間接直接으로 阻害가 만흠뿐이 아니라 北平郵便局에서는 그 配達에 對하야 怠業까지 하게 되매 日本外務省에서는 抗議를 하얏스나 아모 效果가 업섯다 部數도 一落 五千未滿이라고 한다 社長은 日本人 渡邊哲信이요 主筆은 金崎賢이다

日英同盟復活說
倫敦에서도 相當注目

(倫敦二十三日發) 過日來 日本新聞에 나타난 日英同盟復活論은 倫敦에 卽時 反響되어 注目하는 人士가 朝野에 不少한데 官邊에서는 復活할 意思는 업는듯하다 『떼이리ー데레그라푸』紙는 東京日日新聞의 記事를 引用하야 目下 日英兩國間에 同盟復活의 交涉이 잇다고 報道하엿더라

『윌킨스』大尉의 飛機
南極圈內에 飛入

(紐育廿二日發) 濠洲飛行家 『윌킨스』大尉의 南極飛行隊는 南米根據地를 出發하엿는데 水上飛行機가 南極圈內의 大海를 飛行함은 史上 처음일 것이더라

對中問題에 日英共同行動
英政府는 滿足을 表示

(倫敦二十四日發) 對中問題에 對하야 日英兩國이 共同動作을 取한다는 報道가 二十三日 信할만한 側으로부터 確聞한바 此에 依하면 英國政府에서는 目下 兩國間에 交涉이 進行中인 共同動作에 對하야

英國全土에 暴風再襲
死傷數百、失家五百餘
家屋船舶等破損甚多

(倫敦廿三日) 英全國을 通하야 又復 疾風이 부러 今晚外지 死者八名、負傷者數百名을 出하엿다 被害程度는 一週間前보다도 甚하야 住家를 失한 者 五百人 汽船의 遭難、鐵道交通이 杜絕된 個所가 到處에 잇더라

軍艦建造契約報告

(京都電) 內田海軍政務次官은 二十四日 東京으로부터 入洛하야 午前十時半 田中首相을 訪問하고 二十三日 契約調印된 大阪藤永田造船所와의 艦船建造에 關한 件을 報告하엿다 藤永田造船所에서 建造中인 驅逐艦二隻、砲艦一隻及納入材料全部를 原料대로 海軍에서 引受하고 工場管理도 必要에 應하야 海軍에서 行하기로 되엇다는 뜻을 說明하고 諒解를 求하고 마츰 來訪한 小川鐵相 望月內相과도 會見懇談하엿더라

保健과趣味

⑥ 育兒와結婚

趣味는映畵와나되오 衣食과居處에格別한注意

子女를財産으로헤우지말라

◇……青年文士 崔永一氏 夫人 馬賢卿女史……◇

가뎡의불화! 그것은반드시사람업는이들의 배합에서 이러나는것인바 이것에대한 영향은자긔들자신에만 큰것뿐아니라 자긔의자녀에게 여러가지 납분영향을씌치는수가만슴니다

여긔에는 보건상으로 큰결함이생기는것뿐아니라한가뎡의흥망이달렷스며 이것이 버종에는사회에큰영향까지밋치는것입니다 이에문사(文士)로서 경성방송국(放送局)에서일을보고잇는최승일(崔承一)씨는마현경(馬賢卿氏)는 고향이전라도전주로서최승일씨와자유결혼을한이입니다 결혼한날부터지금까지원만한가뎡을일우워 잇슴도 누구나본바들일이지만 또한가지는 남편을도읍기위하여직업부인으로서잇스니 지금은 부군(夫君)이잇는경성방송국의『아나운서』로잇슴니다

……

學生論文懸賞募集

題……우리의進路……

『未來는青年의것이라』는말은『獨逸體士칼 리포그네힛』의 말이어니와우리는多事多艱한朝鮮의將來에對하야『朝鮮의未來는 朝鮮學生의것』이라고 부르지즈려한다 잇슥이우리의指導者로自處하든이들은우리에게무엇을주엇는가 다만黃霧四塞한不安과幻滅無常한失望을주엇슬뿐이다 우리가이艱難한前途를開拓하야나가는데는오즉新進青年即科學을硏究하는青年에게바랄뿐이다 學窓을직히는諸君은언제까지나閑暇하기만할라? 우리에게는刻刻으로엇더한自省과立案을要求한다 우리의前途開拓은 單純한勇氣나忍耐도必要하려니와 嚴肅한科學的基礎우에서 萬全의策을세워야한다

『社會는個人보다優越하다』우리는一個人의 幸福을爲하야이問題를提供하는것이아니라實로우리民族의 前途를爲하야多事多艱한青年學生에게『前途에對한進路』를 보여달라는것이다 이에우리는期待하는誠意의몃千分의一도못되는薄賞으로左記의下에男女學生의玉稿를募集하노니 諸賢은多數應募하라!

賞金

一等 百圓 一人
二等 五十圓 一人
三等 三十圓 二人
〔選外佳作 薄謝進呈〕

應募規定

◇應募者는中等程度又는專門學校程度의男女學生으로함
◇한번投稿한論文은返還치안음
◇論文의行數와頁數에對하야는無制限임
◇募集期限은十一月末日까지

朝鮮日報社

書畫協展의進路(三)
第八回展을보내며

林 和

……

今日

講習會作品六百餘品

毛絲編物展覽會

(入場無料)

午前十時부터 鍾路婦人技藝社에서

主催 婦人技藝社 後援 朝鮮日報社

當面한英語科問題를論함 (7)

鄭 寅 燮

……

明年度普校百校增設로
師範演習生多數養成
就職難인中等卒業生의好機會

總督府의普通學校增設計劃은明年度부터實行하기로되어學務局에서는各道에對하야學校의新設地及教員配置에對한準備를進行中인바明年度는豫算關係로既定計劃인二百校增設는困難할듯하며結局百校內外를各道情勢에應하야配當식힐模樣이다 此에對하야教員은各道及京城師範學校로부터新卒業生이每年六百五十名인데其就職步合은現在의在職教員退職率로보면約百名의過剩이엇스나明年度百校新設에依하야新卒業生은採用이盛旺할形便이다 ……

朝鮮內保險契約
前年보다增加

總督府調査＝昨年末의朝鮮內生命保險損害保險의契約狀況은生命保險日本人件數八萬三千四百五十五件金額一億五百九十一萬二千五百三十二圓인데此를前年에比하면件數七千七百二十七件金額一千七百二十四萬四千百……

◇損害保險 日本人件數……

平壤人으로東京博受賞者
府로부터傳達

지난九月二十日부터今月二十日까지東京에서開催되엇든國產振興東京博覽會에서賞牌를受한사람들中平壤사람은如左한데此賞牌는지난二十日平壤府로부터受賞者에게傳達되엇더라

고무靴 金東元
織物 機業講習所

電信電話의第二次整備計劃
五個年繼續事業으로
三百五十萬圓을計上

七個年繼續事業으로五百萬圓을計上한電信電話整備費는今年度를最終으로結末되엇는데遞信局에서는第二次的整備計劃費로三百五十萬圓을計上하고明四年度부터五個年繼續事業으로繼續線路의緩和、新線路의開設費에充當하게되엇다向者東上한山本遞信局長村上電信電話主任의努力에依하야大藏省側도大體의諒解를得한模樣이다第二次整備計劃中主要한新線保設豫定線은日鮮間海底電話線에結한京城釜山間電話線新設費二十萬圓을爲始하야釜山으로元山에至하는東海岸一帶의電信電話線、近來이現著히進展을示하고잇는北鮮地方通絡船의增設等으로何如間뒤가물리든朝鮮의電信電話方面施設도此第二次整備計劃에依하야困難한狀態로부터脫出하리라더라

不正肥料商嚴重取締
處分二千件

產米其他各種農產物殖產計劃의進展에伴한朝鮮內의販賣肥料의需要는逐年躍進的激增을來하야大正十四年의消費量이僅히三十三萬圓이던것이昨年에는一千五百二十萬을超過하고十二年間에約四十六倍에達함에不拘하고農民의肥料智識은遲遲不進하고其大部分은肥料의實質鑑識力을缺한狀態임으로此間一部奸商이乘隙하야不正粗惡肥料의濫行이더욱甚함으로昨年九月肥料取締令을發布한바今年一月一日부터此를施行하고右實施에關하야昨年度總督府에肥料取締事務監督官一名과各道에肥料取締官吏一名式을設置하는外에勸業模範場에肥料檢查係를新設하고道又는肥料營業者其他의依賴에依한肥料又는原料의分析鑑定에從事케되엇스나右取締의効果에關하야는實施後아즉日淺하야具體的으로此를列擧하기는不能하나不正粗惡肥料의弊風은漸次其數를減하고販賣肥料의品位는漸次向上되어取締令施行後本年六月外지의肥料營業免許數는約八千이오同期間의法規違反及其處分內譯은次와如하더라

告發된者 十六件
諭示된者 百九十八件
注意된者 一千七百七十九件
計 一千九百九十三件

扶安南浦里에扶南夜學設立

全北扶安郡保安面南浦里金仁培等諸氏는方今南浦公普校六學年에在學中恒時學費에困難하야배우고자하야도배우지못하고道路에彷徨絕叫하는無產兒童을爲하야遺憾으로생각하든바斷然……

自働車監督權을鐵道局에移管?
地方官에委任함은不便

朝鮮의自働車營業은各地方廳에서監督을行하야오는……

釜山府土木事業
大部分着工

釜山府의本年度土木費는約十八萬五千圓이엇스나그大部分은入札에附하야工事施工中이오殘存한것은僅히千圓內外의것이四五件인데此事業中에는用地買收費包含되엇슴으로實際工事費로는約六七萬圓에不過하며더욱此外에北濱沿岸貿易施設二個年繼續으로四十三萬圓 運動場에一萬七千七百圓 古館公園改築의二萬圓等도土木課의手를經하야施工되엇더라

元山組合銀行
上半月帳末

當地組合銀行의十一月十五日現在諸勘定殘高는如左(元山)

(單位圓)

◇預金	
定期預金	一、八三二、五二七
當座預金	六〇一、二三六
特別當座	八〇八、三五七
諸預金	八二三、五九〇
合計	四、〇六五、七一〇
◇貸出	
貸付金	二、六五六、三三八
當座貸越	三一三、一九七
割引手形	九九九、八五四
荷爲替手形	四〇一、三四六
公共團體貸	七六二、一三三
合計	五、一三二、八六八

陜川郡南江橋開通式과林北橋起工式

陜川郡大邑妙山峠附道路와南汀橋開通式及林北橋起工式을十……

世界航空圖에新記入된蔚山新飛行場
二日에盛大한開場式

國際航空路의樞要地로其名을세로히世界航空地圖에現하게되엇든蔚山飛行場新設工事는遞信當局과地方長官의勢力에依하야畢竟竣成을告하야十二月二日을期하야關係官民多數를招待로盛大한開場式을擧行하게되엇다平壤飛行第六聯隊에서는祝意를表하고且航空思想을宣傳하기爲하야蔚山에서飛行演習을行할려이오乙式偵察機三機는十二月一日午後二時蔚山飛行場着、二日은各種의高等飛行編隊飛行空中寫眞撮影等을行하고三日平壤에歸還할려이다又民間飛行으로는西尾機가參加할려인데二日의開場式當日은蔚山初有의盛觀을呈하리라더라

……

元山普光學院 一週紀念盛況

……

中旬中元山驛旅客乘降狀況

……

香園艷史 (22)

崔獨鵑 作
安夕影 畫

……